

시론

부모와 자식

부처님의 아버지였던 정반왕은 아들이 출가를 해서 성을 떠날까 봐 늘 노심초사 하며 지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출가를 해서 세계적인 성인이 되는 것보다는 자신의 대를 이어 카필라왕국의 공법한(?) 왕이 되는 것을 더 원했다.

우리는 최근에 정말로 가슴아픈 일을 하나 겪었다.

아직 세상을 모르는 순진하고 천사같은 나리양을 돈 몇 푼에 잃은 것이다.

그것은 유괴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소망하는 못 사람들과 가슴을 때박한 사건이었다.

억울하고 가슴아프게 일찍 자식을 잃고 평생동안 한을 간직하고 살아야 할 나리양 부모들에게는 우리의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고 한평생을 보낸다고 하지 않겠는가?

시각이 약간 달라졌지만 범인의 아버지도 고위 공직자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도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였다.

자식이 저지른 죄, 그것도 만인이 다 분개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다면 당연히 부모도 함께 도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정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범인을 자식으로 두었다는 사실,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는 사실들로 물질을, 정신적인 부담을 못 면하고 있는 셈이다.

그밖에도 우리는 자식 때문에 가슴을 치고 사는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보고 산다.

정말로 자식은 무엇이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무엇인가?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동반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부모가 행한 어떤 일 때문에 자식이, 자식의 일 때문에 부모가 부담이 된다든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삶 자체가 고통스럽다.

라올라가 처음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버지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불교를 전파하는데 큰 일을 하지 않았던가.

석가모니부처님과 라올라  
식다르타 태자는 아내인 아소다리가 아들을 낳았을 때 출가 수행의 장애, 방해꾼이 된다는 뜻의 라올라로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원만한 불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정반왕이 아들을 생각하는 심정과 식다르타 태자가 아들을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달랐다.

과연 자식은 무엇인가?  
식다르타 태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식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또한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꾼이었을까?

요즘은 온 나라는 오는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과거에 우리는 대통령에 관한 불행한 역사를 겪어 왔다. 그들의 불행은 곧 우리 국민들의 불행이었고, 그들이 잘못 일구어 놓은 풍토는 우리 국민들을 참으로 불편하게 했다.

대통령이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풍토가 되어야지, 국민과 나라가 대통령을 걱정하는 그런 일은 이제 없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선거를 앞둔 어떤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이니까 법대로 했겠지 하는 시각과 상식에서 벗어난 그들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각으로 질려 참으로 시끄럽다. 그 문제로 결국 후보 본인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지금도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결국 자식의 문제가 목표를 이루는데 걸림돌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또 하나 자식에 관한 일을 짚어 봐야겠다.



이슬기 (작가·은석초등학교 교사)

열린마당

성보의 자리

성보문화제는 제자리에서 최선의 보호를 받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지만 보호·관리를 이유로 일정장소로 옮기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성보도난사건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단위사찰들이 소장하고 있는 성보와 폐사 등에 신재한 성보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최근 충남 청양군 운장리의 철조관음보살좌상(보물 986호)의 관리를 둘러싸고 운장암과 본사인 마곡사, 청양군이 마찰을 빚은 것은 성보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였다. 이를 계기로 보다 효율적인 성보관리 방안을 들어 보고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논란을 빚고 있는 성보문화제의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도난·훼손 등 예방시설 선결과제

철웅 (마곡사 주지)

성보는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문화재 차원을 떠나 신앙의 대상이요 부처님이다. 집안된 부처님이 있어 할 곳은 법당이므로 제대로 보호 시설을 갖춘 사찰에서 봉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단산히 보고 감탄하는 문화재가 아닌 생생한 신령의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운장암 철조관음보살좌상의 행방은란은 허가조차 없는 민가에서 운장암이라 지칭하며 보살상을 모신 것으로 청양군의 문화재 관리 허술에서 비롯된 일이다. 행정당국에서 관할지역 내의 성보문화재를 방치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성보문화제에 대한 관계당국의 미흡한 인식 때문이다. 불자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이지만 행정당국에게는 도난당하지 않아야 할 물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당국은 성보문화제를 보물이나 국보라는 개념을 초월해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성보문화제의 가치는 단순히 물적 가치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그를 조성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서원까지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성보전시관에 옮겨 안전보존해야

범하 (성보보존위원)

영구적인 성보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성보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물론 관리만 잘 된다면 먼 위치에 모시는 것이 옳으나 관리가 허술한 사찰이나 임지의 경우에는 교부본사나 성보전시관으로 이전, 안전한 장치하에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지사 본말사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데, 법당에 모시는 성보를 제외하고 오래돼 관리상의 문제가 있거나 보호 인력이 없는 성보는 모두 본사로 이전하고, 대신 여법하게 새로운 성보를 조성해 모시고 있다. 성보문화제의 훼손이 우려돼 개별 사찰에 모셔놓을 뉘야 할 입장이라



도 전통과 법식에 맞춰 불사를 이루겠다는 것은 보존과 재창조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등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성보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협의와 함께 종단 차원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각 불사단위로 성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것과 동시에 종단이 전체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불교중앙박물관을 건립해 제자리를 떠난 성보를 보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지역문화재 제자리 있을때 빛나

장수봉 (충주문화원장)

지자체가 출범한 이래 각 지역에서 자기 고장의 문화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화재는 제 위치에 있어야만 빛을 발한다. 우리 문화재가 제자리를 떠난 채 훼손된 것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서 비롯됐다. 현재는 개별이라는 미명하에 또는 보호를 구실로 많은 문화재들이 제자리를 떠나고 있다. 지역문화재는 그 지역의 자원이요 재산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자체의 지역문화재 반환요구에 대해 박물관 면모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가통보를 해왔다. 이는 지역문화재를 무시한 처사다. 보존관리를 앞세워 중앙정부나 교구본사들이 다



투어 지역문화재를 가져간다면 지역문화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문화재의 집중화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지역박물관 및 개별사찰의 문화재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문화재에 실질적인 관심을 갖고 향토문화 보존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당국·지자체·불교계 등이 상호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대책을 마련, 우리 모두가 실질적인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겠다.



◇보존관리를 두고 마곡사와 청양군이 마찰을 빚었던 청양 운장암 철조관음보살좌상.

제자리 못찾는 성보문화재 사례

최근 충남 청양 운장암(주지 보일)에 봉안돼 있던 철조관음보살좌상(보물 986호)이 보호관리를 이유로 마곡사로 반출됐다. 청양군과 지역주민들의 항의를 받아 떠돌이 신세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 아무런 보안장치없이 허술하게 보관된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운장암 철조보살상은 국가지정문화재로 해당관청인 청양군에 관리 책임이 있다. 또 성보문화제인만큼 운장암의 본사인 마곡사측도 이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청양군은 지난해 운장암 복원예산으로 책정된 7천여만원을 마곡사와 상의도 없이 정식 임명장도 없는 운장암 주지와 협의, 예산을 반려했다. 문화재관리 당사자들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현재 운장암 철조관음보살좌상 반출사건은 일단락돼 운장암에 봉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시설이 갖춰질 때까지 청양군내 잠곡사에 임시 보관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건립되고 있는 보호시설은 임시 가건물로 장기적인 보존대책이라 할 수 없어 문제의 소지는 아직 남아 있다.

이러한 본·말사 혹은 사찰·지자체간의 성보문화재 쟁탈전은 각 교구본사에 성보전시관이 들어설 경우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교구본사의 성보도난 사건도 잇따르고 있어 관리문제를 들어 성보를 본사로 이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동안 성보문화재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치돼 논란을 빚은 예가 적지 않다. 한송사지 석불좌상(보물 81호)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중인 석조보살좌상

운장암 철조관음상 '떠돌이 신세' 한송사지 석불 강릉시청에 보관

(국보 124호)과 짝을 이루는 귀중한 성보임에도 불구하고 옛 자리를 떠나 강릉시청에 보관돼 온 지 오래다.

조계종과 문화재관리국은 지난 2월 전남 영양군 도갑사 경내에서 출토된 청동문수동자상과 광배의 소유권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도갑사는 청동문수동자상이 사찰 경내에서 발견된 만큼 조상에게 물려받은 전세품(傳世品)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문화재관리국은 명문(銘文) 등 발굴문화재의 소유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국가소유임을 밝히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보관 중인 석조문화재에 대해 원주시·충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주목할 만하다. 원주시는 95년 반환청원서를 냈었고, 96년에는 시민 2만여명의 반환서명을 받아냈다. 그러나 박물관은 반환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화재가 원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폐허가 된 절터에 그대로 방치해 두면 훼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리산 마이부인의 경우는 산 정상에 보호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방치돼 이교도들의 손에 훼손되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대학박물관이 보존처리나 전문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성보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창고에 방치된 채 손상되고 있는 성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국대나 경북대의 뜰에 놓인 탑과 석조물들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의해 파손을 입고 있다.

성보문화제는 불자를 비롯 우리 민족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을 생각할 때 영구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윤기석 기자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충천옥산가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복대, 베개, 반지 이렇게 하나씩 사용해 보세요! 모든 병이 호전됩니다.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꽃병, 노화방지...
부족하여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들읍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료 효과를 기록했다 (93.2.17 서울신문)
조선가옥이 위약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본오래대로 정독은 곁을 따르십시오 기피되어 있습니다.
이산가옥만을 꼭꼭이서서 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레멘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봉포 송송 777-0105 (수원연어가)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FAX 053)943-9371

중국명문 한의대 박사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 연수 대학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남경한의대) 중국 남경 TEL: 660-7129
■ 대상 : 한의사, 한약사, 스님, 침·기공에 관심 있으신분
■ 기간 : 8박 9일
■ 주요연수내용 : 당뇨병, 중풍, 간염, 비만, 좌골신경통 등의 침치료, 기공등
■ 연수 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高級課程 進修 證明書)
■ 인원 : 10명 선착순
■ 출발일 : 1997년 10월 21일(화)
■ 문의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 전화 : (02)511/2026-8